

용서: 근원으로 향하게 하는 희망

2022년 사순 시기를 살아가며¹

호세 그라나도스 신부(Fr. José Granados)

Superior General of the Disciples of the Hearts of Jesus and Mary

번역: 손호빈 신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에게서 미래를 그리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갔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희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시련 중에도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은 또한 과거 우리에게 영향을 준 상처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단지 불확실함 때문이 아니라, 상처의 경험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두려움없이 서로를 다시 안아주며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심리학자 마시모 레칼카티(Massimo Recalcati)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친구)을 잠재적 죽음의 위협으로 본 후,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이탈리아의 한 언론인은 감염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¹ 원제목: Forgiveness: Hope towards the Origin – for Living Lent(2022)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미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희망으로 과거를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얽매어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로 인해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으로 과거를 재탄생시킨 가장 좋은 예는 용서의 체험입니다. 용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영향을 미치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 형제의 고통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과거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이 “남겨진 희망”(backward hope)을 발견하고 실천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사순 시기의 특징은 ‘기도, 자선 그리고 단식’입니다. 용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용서는 자선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은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신성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기는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사순 시기에 대한 중심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귀환, 즉 위대한 탈출기입니다. 이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탈출기는 신약성경 안에서 용서에 관한 전형적인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아들로써 아버지의 집인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탈출기는 좀 더 해방에 관한 이야기, 또는 하느님 백성의 탄생 이야기 혹은 새로운 약속의 길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탈출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요셉의 이야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탈출들(Exoduses)

구약성경 안에는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용서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형제들간의 용서는 야곱과 에사우 사이에서도 드러나지만,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몇몇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아내에 대한 용서를 자신의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될 마지막 용서의 예형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창세 37-50장)는 우리에게 탈출(Exodus)이 필요했던 이유와 그 탈출이 단지 이집트를 떠나는 탈출이 아닌 조상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탈출이어야 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라엘(야곱의 별명)의 여정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는 종살이의 거처로 전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유다의 개입으로 한 가닥의 희망이 살아나며, 이는 이야기 내내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는 그가 “우리의 살붙이”(창세 37, 27)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들과 같은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동일한 부계혈통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공통 근원이자 아버지가 같다는 것은 증오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것을 보장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같다는 것은 또한 용서를 실천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아들들의) 범죄는 특별히 12명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야곱은 피로 물들여진 요셉의 저고리를 보고 그가 찢겨 죽었다고 믿으며 그의 죽음을 이내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요셉에 대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근원에 대한 범죄이자, 아버지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결과적으로 부당함의 원인이 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이후 그의 형들이 요셉을 뒤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오가며 일련의 탈출을 반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자마자 용서해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용서를 시도해보겠다는 것은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대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이 아닙니다. 형제가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형제를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형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형제가 저지른 악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기억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르게 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벤야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요청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방의 탈출입니다. 이 여정 중에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뺏았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벤야민을 함께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야곱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을 통해 그들은 새롭게 거듭나며, 더 이상 자신들이 초래한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탈출 이후 두 번째 탈출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시 만난 후 벤야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창세 44, 2). 형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은 막내 아들 벤야민에게 죄를 묻기 위해 관리인을 보내 수색하게 합니다. 이 일은 유다의 희생(generosity)이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벤야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죄를 저지른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법을 배웠다면, 요셉 또한 자신의 형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선을 행할 줄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탈출 이후,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변화로 용서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세 번째 탈출 또는 귀향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야곱을 요셉에게 데려가기 위한 기쁜 되돌아감이 됩니다(창세 45, 21-28). 그러나 아직 네 번째 탈출이 남았습니다.

요셉과 재회한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그를 방부 처리한 후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이스라엘(야곱의 별명)은 되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창세 50, 19). 다시 말해 요셉에게는 죄를 완전히 치유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요셉의 용서에 부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한 후에야 자신의 악행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악행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형제와 맺은 계약의 근원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고 완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일종의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창조의 샘을 재탄생시키며 그 샘이 다시 터져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서가 아무리 요셉의 용서처럼 엄청난 것일지라도 용서의 뿌리까지 닿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나 자비(mercy)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저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간청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것으로 막이 내립니다. 그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요셉의 몸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의 몸은 이집트에 묻히는 대신 방부 처리되어 석관에 보관됩니다. 새로운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으나, 탈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창세 50, 25).

2. 아버지들에게 되돌아가는 새로운 탈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순 시기 설교(설교, 209)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로 게으름, 완고함, 교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고함을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기 싫어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만은 “용서를

청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대감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설교, 209).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교묘한 유혹이며, 그것은 형제와의 동등한 관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내면의 어딘가 상처받게 되고, 이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엮이게 되고 서로의 주변을 맴돌며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용서에 대한 망각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더이상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갇아야 할 빛과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창세 50, 24 참조)라고 위로하며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설령 열두 지파가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탈출기(Exodus)는 근본적인 용서를 구하는 여정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 여정을 통해 용서가 심연에 닿으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땅과 자신들의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일어나 우리 조상들에게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혈통인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혈통은 유일한 근원이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혈통과 그 근원이신 하느님과 화해할 때,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자신의 형제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해방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되돌아감의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탈출 3,6). 그리고 이 되돌아감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조상들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보다, 그들을 잠들게 한 망각보다도 더 견고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기는 총체적으로 부제를 표상합니다. 파라오가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강에서 목숨을 건진 모세의 탄생 사건과 더불어 서사의 요점이 집약된 만아들을 죽였던 열 번째 재앙을 기억해봅시다. 본 맥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만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어린 시절 때와 유사하게 물을 통한 또 다른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후 광야에서 그들은 물과 음식을 통해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은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세의 부계를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에 대한 반영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모세의 부계로 이어진 하느님께 있음입니다.

이것은 성부와와의 관계가 구체적인 현존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문힌 약속된 땅에 의해서 중재됩니다. 그 땅은 정복하기 매우 어려워 그들은 그 곳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을 저주하는 첫 번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주함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혈통(origins)과 근원(Origin)이신 하느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 다시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는 구체적인 의미로 부성(fatherhood)과의 화해이고, 세상 자체와의 화해이기도 하므로 결국에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의 증거인 자기 몸과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이집트의 흔적을 지워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에는 요르단 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Joshua, 예수님과 동명인)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은 성부의 용서를 얻는 것이고, 약속된 땅에 문힌 자신들의 조상들을 용서하고, 자신들의 혈통인 그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키서는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말라 3, 24)고 끝나는데, 이는 모든 벌과 모든 악행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순 시기의 궁극적인 지평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용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기원인 아담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조상과 우리를 화해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루카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루카 3, 23-38)를 고려하여 일흔 일곱 개의 혈통 수를 세며, 이 숫자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연결시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께서 “일흔 일곱번”이라고 대답하셨고, 이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혈통의 정점을 재탄생시켜주는 것이며,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쌓인 모든 죄를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치유할 수 없는 죄나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우리의 용서

이렇게 우리는 사순 시기의 핵심인 탈출기가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봤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순 시기를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는 만큼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중재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말한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키워준 아버지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도 용서해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부모를 용서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항상 상처를 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조상들의 하느님으로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삶(때로는 그 삶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을지라도)을 최초의 근원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원적 근원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탈출기는 우리 혈통에 내재된 상처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균열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쳤을 때 그 곳에서 물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균열을 생명의 물과 결합시킨다는 것은 부성을 회복시키고 부성과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찢린 심장을 상처의 샘으로 만드심으로써 상처와 생명의 물을 결합시키시고 봉인해 주셨습니다.

이 부성의 상처를 토대로 다른 상처들을 조명해봅시다.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비롯된 또 다른 상처로 형제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질투(라틴어 ‘in-vidia’는 ‘대항하여 바라보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 즉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결핍에 의해 생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를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와 결합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근원의 선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근원을 통해 우리는 형제를 공동의 운명에 함께 하고 있는 동반자로, 나와 같은 충만함에 속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형제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상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같은 땅을 향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운명에 다시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에 대한 원망을 극복하는 것은 다소 쉬워 보입니다. 자녀의 배은망덕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2사무 19, 1-2 참조). 아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가 되어감을 배우는 것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2코린 12, 14)에서 영감을 받자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짓는 죄에 대한 자각을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아버지인 사제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아름답게 정의하며 그들 스스로를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감사기도 제1양식 중²)로 묘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²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사제들이 바라는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과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용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우 자유롭고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생을 아우르는 공동의 이야기가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용서에는 하나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의지보다 더 확고하고 부부로서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혼인 서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킨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혼인의 결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제나 수도자도 교회의 한 부분이자 배우자의 표상을 지닌 자신의 공동체나 수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아마 교회의 모든 면이 냉정한 기관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예전되고 그 모든 환경이 뿌리내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체에 모든 관계가 섬을 얻고 성장하는 데 버팀목이 되는 근원적으로 선하신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이 용서에 대한 희망의 사순 시기 여정에 고해성사가 지닌 특별함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례와 다르게, 고해성사는 고해자가 하는 고백들이 성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사의 일부가 됩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고해성사가 세례성사보다 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고백과 보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해성사에서 고해자는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성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해자의 세가지 행위, 즉 ‘참회(성찰-통회), 고백, 보속’이 향주삼덕인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속은 희망과 연결되는데, 고해자 자신은 자신의 역사를 바로 잡는 주체로서 하느님과 협력하기 위한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사순 시기라는 시간에, 탈출기의 여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용서는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려야 할 역사 또한 알려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다고 재차 말했을 때, 그는 “형제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 20)라고 선언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악행을 공동선으로 변모시키는 하느님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면, 용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재결합시켜줍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의 여정은 희망의 여정이자, 과거를 정화시켜주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희망의 여정입니다.